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노후 급수관 개선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총 3676세대 대상 노후옥내급수설비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화된 급수관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기섭)는 시민들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건강 증진 등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옥내 급수관의 세척·경생·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옥내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당장 시는 올해 총 5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676세대를 지원 대

상으로 선정해 노후옥내급수설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는 △연면적 85㎡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은 총공사비의 70% 이하로 세대수에 따라 4000만 원~1억5000만 원까지 △연면적 85㎡ 이하인 단독주택은 총공사비의 70% 이하로 최대 1억 원까지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은 총공사비의 70% 이하로 최대 350만 원 이하이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대해서는 총공사비 70% 이하로 최대 100

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등 깨끗한 물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매년 1월 접수를 받아 전주시 급수설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말까지 노후한 급수관을 교체·개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노후옥내급수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송전동 서호1차아파트를 비롯

해 옥내 급수관의 노후 및 부식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과 학교, 사회복지 시설 등 총 94곳(공동주택 83곳, 학교 4곳, 사회복지시설 3곳, 주택 4곳)을 지원해 맑은 물 공급에 일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3억4000만 원을 투입해 1887세대의 노후옥내급수설비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이기섭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조기에 개선해 맑은 깨끗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꾸준히 사업을 확대하고, 전주시 노후 옥내급수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하수처리장 내 기계·전기·건축·토목설비 대수선공사 추진

전주시가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고, 전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빈틈 없이 관리하고 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기섭)는 올해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해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내 기계·전기·건축·토목설비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덕진구 송천동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1990년 1단계 처리장을 준공한 이후 2·3차에 걸쳐 추가 처리용량을 확보해 현재 일평균 36만톤의 하수를 처리 후 방류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전북혁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난 2015년 전주혁신도시와 완주 이서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혁신

수질복원센터를 추가 개소해 일평균 1만 4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BTO사업(민간 투자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지자체에 소유권이전 후 일정기간 시설운영) 운영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대행 운영 방식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를 하수처리장에 대한 철저한 운영·관리를 위해 올해 시설운영비와 대수선공사 비용을 포함한 약 398억 원을 투입한다.

전주시, 청년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전주시가 청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시는 21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 단체인 전주시 4H연합회(회장 문정희) 회원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특화 분야인 농업을 비롯해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주시 청년정책 추진방안과 접근성 제고 방안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및 정책 수요 △청년농업인 활동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자유롭게 진솔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분야별로 청년들의 의견을 청년정책 전반에 담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읍지연습’ 성공적 마무리

전주시가 ‘2025년 읍지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키웠다. 시는 21일 오후 시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종합 강령보고회를 끝으로 지난 18일부터 4일간 이어진 ‘2025년 전주시 읍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

무리했다. 올해로 57번째를 맞는 읍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종합훈련으로, 국가 총력전에 대비해 전시대비 계획인 총무계획을 점검하고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시가 ‘2025년 읍지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키웠다.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최초상황보고회의를 시작으로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비상근무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첫날에는 기관장 주재로 총무계획 발전 소요 도출을 위한 전시현안과제 토의가 진행됐으며 2일차에는 전시상황 대비 도상연습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 20일 오후에는 지역 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덕진구 소재 방호목표시설인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력관리처에서 미상의 드론에 의한 폭발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장한 실재훈련도 이뤄졌다. 같은 시각 전주시 전역에서는 민방공 사이렌 발령과 동시에 전 국민 대상 대피 훈련 및 교통 통제, 긴급차량 길터주기 훈련도 실시됐다. 올해 읍지연습은 마지막 날인 이날 ‘종합 강령보고회’를 통해 4일간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과 성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훈련 평가부서의 보고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주함께 미(米)소(笑) 프로젝트’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함께 미(米)소(笑)’ 협력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협약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회장 최재훈)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주함께 미(米)소(笑) 프로젝트’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함께 미(米)소(笑)’는 시민이 기부한 쌀과 누룽지, 식료품 등의 물품을 생활 여건이 어려운 전주·완주 지역의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나눔 활동이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이해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과 이은영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 소속 7개 노인복지관(금암·꽃발정이·덕진·서일·안골·양지·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의 기관장이 참석해 사업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과적인 모금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주시역 7개 노인복지관은 연합모금을 통해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눔 활동의 지속성과 확산을 도모해 시민 참여형 나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재훈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장은 “전주함께 미(米)소(笑) 프로젝트는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시민 주도형 나눔”이라며 “전주·완주 어르신들의 일상에 웃음과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함께 미(米)소(笑)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063-253-5728)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사랑콜’ 이용자 만족도 크게 개선

전주시 공공택시 호출앱인 전주사랑콜이 새단장 이후 이용자의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6월 새롭게 오픈한 ‘전주사랑콜’이 시스템 개선과 편리한 이용 환경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와 회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조기에 안정화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사랑콜은 이번 개편을 통해 호출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으로 바꿔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기사용 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운수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전주사랑콜에 가입한 택시 수가 기존 2070여 대에서 2280여 대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빠른 배차에 대한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져 개편 전에 비해 불만족 민원이 77%가량 대폭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더욱 편리해진 전주사랑콜을 알리고 더 많은 고객이 전주사랑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전주에서 열린 전주가맥축제와 전주열티밋뮤지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 행사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시스템 개선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전주사랑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이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www.khnp.co.kr



무주양수발전소는 무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이 왜?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저수지의 물을 위치가 높은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저장된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양수발전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파수 조절 및 정격전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무주양수홍보관 관람정보

- ▶ 개관시간 : 주중 09:00 ~17:00(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 ▶ 휴 관 일 : 주말 · 공휴일 · 신청 · 설연휴 · 추석연휴 · 기타 회사 기념일 및 지정일
- ▶ 관람신청
 - 전화문의 : 070-4000-2141, 2144 · (063)324-3665 / FAX : 0502-734-0543
 - 인터넷신청: www.khnp.co.kr / 한수원 방문신청 / SMS인증 / 무주양수 전시관
- ▶ 주 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788 「무주양수홍보관」